

## 요약하기에 드러난 거시규칙 적용 양상 고찰

서종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 I. 들머리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IV.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 V. 마무리

## I. 들머리

요약하기는 다양한 읽기 방법 및 전략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요약하기가 읽기 교육에서 지니는 교육적 가치는 특별하다. 대다수의 읽기 방법 및 전략들은 대부분 요약하기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자의 주체적 의미 수렴에 있다. 이 과정에서 요약하기는 독자의 주체적 의미 수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현재 요약하기는 국어과의 읽기와 쓰기 영역, 특히 읽기 영역에서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국어과 다른 영역에서도 주요한 학습 전략이나 방법으로 활용된다. 나아가 이 활동은 국어 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용 중심의 타 교과에서도 학습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 학교 현장의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밖의 성인들에게도 요약하기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인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직종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문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 산출해야 하는 직종에

서는 요약하기 과정이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요약하기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주요한 학습 전략으로, 학교 현장 밖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요약하기 활동은 학교 내에서 혹은 그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말과 글을 통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인지 활동이자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기의 구체적인 인지적 과정과 활동은 텍스트의 중심 내용 혹은 주제 파악 활동과 관련된다. 텍스트를 읽고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쓰거나 말하려면 반드시 텍스트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축약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즉 요약하기 활동은 표면적으로는 텍스트의 정보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약하기 활동은 정보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인지 작용은 텍스트의 내용을 처리하는 독자의 수용 과정에 초점이 있다. 이른바 요약문은 텍스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처리된 것이 아니라, 독자의 관점이 수반되어 재구성된 내용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sup>1</sup>

하지만 이런 중요성과 인지적 복잡성을 지니는 요약하기 활동이 국어 교과 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요약하기 활동이 단편적이나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텍스트 혹은 일정한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 보거나 혹은 써 보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요약하기 과정의 바탕을 이루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인지 활동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1 Kintsch(1993)에서는 요약하기의 과정을 정보를 덜어내기 및 더해놓기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요약하기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텍스트의 정보가 줄어드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독자의 관점에서는 그 텍스트의 심적 모형을 형성해 가는 데 필수적으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더해 놓을 수밖에 없다. 이는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 심적 모형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요약하기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거시규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약하기 과정상의 규칙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하기 과정상의 일정한 정형성을 발견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요약하기는 읽기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물론 인지심리학에서도 다수의 요약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갈래의 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요약과 관련된 주요한 연구로는 텍스트 그 자체, 즉 텍스트의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독자의 텍스트 처리에 초점을 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Meyer(1975), Kintsch & van Dijk(1978), van Dijk(1980), Brown & Day(1983), Kintsch(1993) 등이 주요한 참고 논의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국어교육적 틀에서 임두순(1989), 서혁(1994), 이삼형(1994), 김재봉(1997), 허선익(2010) 등과 다수의 문헌에서 요약과 관련된 논의를 살필 수 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요약하기와 관련하여 거시규칙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비교적 최근 논의로는 김윤미(2006), 심선희(2009), 전원대(2010), 김태구(2014) 등이 참고가 된다. 이들 논의는 주로 요약에서 거시규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아울러 그런 적용상의 문제가 실제 요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국어교육의 틀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다수의 국내에서 논의되는 요약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요약하기의 방법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즉 요약하기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탐구보다는 대다수 기준의 요약 이론에 기대어 요약을 어떻게 해야 한

다는 식의 규범적 차원의 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는 학교 현장의 읽기 교육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요약하기의 본질, 특히 요약하기의 구체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는 그만큼 요약하기가 지니는 인지적 복잡성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요약하기의 구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표면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의 문제가 이런 인지적 복잡성의 단면을 일부분 해결할 수 있음과 관련될 수 있다.

이점에서 본고는 요약하기 과정의 문제를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van Dijk(1980)의 연구에 주목한다.<sup>2</sup> 물론 요약과 관련된 거시규칙은 van Dijk(1977, 1979, 1980, 1983)의 일련의 논의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된 거시규칙으로는 삭제, 선택, 일반화, 구성이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선택의 경우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삭제와 차별적으로 접근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종 거시규칙에서 제외되기도 했다.<sup>3</sup>

통상 요약은 삭제가 기본이다. 일반화와 구성의 경우도 결국은 제시된 정보의 양이 일정한 의미 기준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삭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 줄어듦의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선택의 경우 삭제와 달리 요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삭제 규칙은 다른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2 통상 국내에서 거시규칙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은 정시호 옮김(2000)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고는 거시규칙의 본질적 측면을 거시구조의 틀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van Dijk(1980, Hillsdale, N.J.: Erlbaum)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요약하기의 본질적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저서는 필자에 의해 2015년에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3 실제로 1983년 논의에서는 제외되었고, 이는 비단 van Dijk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수의 텍스트 언어학과 관련된 일련의 학자들의 논의에서 선택 규칙은 주요한 거시규칙에서 제외되었다(김태구, 2014: 22 참조).

van Dijk(1980)에서는 실제로 선택 규칙을 약한 삭제로 다루고 있다.<sup>4</sup> 선택 규칙의 경우에 선택된 것은 요약의 대상으로 기술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요약 과정에서 삭제되는데, 달리 말하면 선택된 것은 담화나 텍스트의 화제 및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선택되지 못한 것은 화제 및 주제에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약한 삭제는 담화나 텍스트의 화제 및 주제에 무관한 것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는 삭제가 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van Dijk(1980)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이론을 약간 수정해서 다룬다. 여기에서 선택의 경우는 제외되고, 삭제를 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로 구분해서 일반화 및 구성과 함께 제시한다. 즉 약한 삭제는 담화나 텍스트의 화제 및 주제에 무관한 것을, 강한 삭제는 지엽적으로 관련은 되지만 주제나 화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는 요약과 관련된 주요한 거시규칙으로 약한 삭제, 강한 삭제, 일반화, 구성을 이론적 틀로 삼는다.<sup>5</sup> 물론 van Dijk이 제시해 온 거시규칙 이외에도 요약과 관련한 다수의 이론적 논의들이 있지만, 대다수 van Dijk의 기본적인 거시규칙을 모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van Dijk의 요약과 관련한 일련의 거시규칙들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되어 온 일련의 거시규칙은 인지적 측면에서 실질적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이론들이 요약과 관련한 다양한 언어 수행 양상들

---

4 van Dijk(1980: 75)에서는 네 가지 거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그리고 강한 삭제의 순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택 대신에 약한 삭제를 사용함으로써 선택과 삭제 규칙의 중복 적용의 문제를 벗어나고 있으며, 아울러 선택과 삭제 규칙이 지니는 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5 삭제(강한 삭제, 약한 삭제)의 경우는 상황과 일화의 기술에서 속성들과 사건들의 상대적인 관련성과 관련하여, 일반화는 개념들 간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지식 적용의 요구를 통해, 구성은 일반적인 조건, 구성 요소, 총체적 사건들과 행위들의 결과에 대한 지식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로부터 귀납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다분히 직관에 의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적용상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문장 중심의 기계적 적용에 따르는 단순성으로 인해 요약 과정의 인지적 복잡성과 추상성을 드러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요약하기와 관련한 일련의 이론적 규칙으로 van Dijk의 일련의 이론들이 지니는 선행연구로서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요약하기와 관련한 일련의 교육적 방법이나 전략들에 대해 논의할 때 van Dijk의 이론이 주요하게 등장한다는 점만으로도 이론적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다.

### I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1. 연구방법 및 개관

거시규칙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문장 중심의 접근법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텍스트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요약 과정을 언어학 차원의 이론적 논리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sup>6</sup> 하지만 이런 문장 중심의 거시규칙 양상을 실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약 과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분석의 과정에서 수많은 미시명제를 거시명제로 도식화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거시명제가 지니는 의미의 중층성이나 추상성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자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배경지식의 영향도 고려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따라서 요약하기 양상의 다양한 모습을 문장 중심으로만 접근하여서는 요약하기 과정이 지니는 다양한 인지적

---

6 김재봉(1995)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는 낳는다.

따라서 본고는 그와 같은 거시규칙의 이론을 문장 중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요약의 과정의 중심이 되는 단락 단위에 두고 접근한다. 또한 요약하기 과정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sup>7</sup> 이를 통해 각 요약하기 횟수에서 발생하는 거시규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3회에 걸쳐 반복되는 요약하기 과정이 특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요약하기는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과정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요약하기는 거의 일회성으로 그친다. 따라서 요약하기 과정이 지니는 다양한 인지적 가능성과 창의성을 사전에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요약하기 과정의 핵심은 결국 텍스트 중심의 내용을 독자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데 있다.

이는 요약하기가 일회성 과정으로 끝날 경우는 대다수 텍스트 중심에서 일부 내용만이 삭제되는 결과로 그칠 수 있지만, 요약하기의 횟수가 늘어 날수록 독자의 의미상의 개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른바 학습자 중심의 요약 과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사용된 대상 글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주장과 설명 글 각각 1편씩을 사용하였다.<sup>8</sup> 두 편 모두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 각 단락마다 소주제문을 명확하게 포함한 평이한 글이다. 거시규칙 적용

7 평소 필자는 학습자들의 요약하기 지도에서 요약문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주목해 왔었다. 특히 요약 대상 원문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요약하는 학습자들도 다수 접해 왔었다. 이는 요약하기의 본령과는 거리가 먼 양상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요약하기 활동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즉 요약의 회귀성, 반복성의 속성을 감안하며, 요약의 결과가 대상 텍스트에서 독자로 그 초점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해 거시규칙이 텍스트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변해 가면서 그 적용 양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요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윤희원 외(2011: 54-57, 금성출판사)

여부의 단락 위주로 살펴볼 수 있는 적합한 실험글로 평가된다.

### 죽어 가는 바다를 살리자<sup>9</sup>

최근 들어 우리 바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육지에서 밀려들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더욱 나빠지는 바다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여기에 서는 바다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쓰레기가 바다 생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바로 '얽힘'과 '삼킴'인데, 매년 약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동물과 100만 마리의 바다 새가 얹힘과 삼킴 때문에 죽어 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면 바다 표범은 호기심이 많아서 바닷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를 가지고 놀거나 쓰레기 사이로 머리를 넣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린 바다표범의 몸에 뱃줄이나 그물이 걸리면 바다표범이 성장하면서 점점 뱃줄에 몸이 졸려 죽게 된다. 또 바다 새는 약 35퍼센트 이상이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 조각을 먹으면 소화 기관이 막혀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

바다가 쓰레기로 오염되면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받는다. 버려진 어망이나 낚싯줄이 어선의 스크루에 감기거나 플라스틱 덮개로 인해 엔진이 고장 나는 배가 많아지고 있다. 배의 고장은 어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조업 시기를 놓치게 한다.

그리고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우리가 바다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불쾌감이나 불편함, 위험 등으로 인해 휴양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닷가 주민들의 건강 및 안전이 위협 받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우리는 바다의 자원과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

9 이하에서는 자료A로 제시한다.

는 해양 정화 사업과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국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70퍼센트가 육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온 국민이 협력하여 생활 공간 주변과 어업 현장 등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공간 주변과 어업 현장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선박이나 해변에서 생긴 쓰레기 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로 가져와서 처리하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쓰레기도 줄여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환경 지킴이가 되어 지역 주민 또는 시민 단체와 인근 지역의 해양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감시 할 수도 있다.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작은 물줄기가 된다는 점을 되새기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위하여 우리 가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자료A의 경우는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주장글이다. 전체글의 구성 방식도 전형적인 3단 구성 방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이런 전형적인 수사적 구성 방식이 실제 요약문에서 어떻게 재구성될지, 아울러 본론 내 각 단락들이 어떤 거시규칙의 적용으로 통합될지 등이 조사 과정상의 주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 바다가 주는 혜택<sup>10</sup>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라고 한다. 이는 바다가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

10 이하에서는 자료B로 제시한다.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퍼센트를 차지하며 바닷물을 지구상에 있는 물의 98퍼센트에 이른다. 우리는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바다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을까?

바다는 지구 전체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 전체의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그리고 바다는 다양한 바다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바다에는 육지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으며 그 수도 엄청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에서부터 거대한 고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물이 바다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의 막대한 생물 자원은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다. 바다는 전 세계의 인류가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6분의 1을 공급한다. 또한 바다 생물은 항바이러스 물질이나 항암 물질 등 인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물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바다의 생물 자원 중에는 아직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으며 계속 연구·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크릴새우인데, 전 세계 식량 자원이 대부분 1억 톤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크릴새우는 10~50억 톤이나 된다. 또한 다량의 필수 영양소 및 질병 예방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류의 미래 식량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우리는 바다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다양한 광물 자원과 에너지원을 얻고 있다. 현재 모래나 자갈과 같은 건축 재료를 바다에서 채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심해에서 망간,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도 채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대체 에너지로서 조력이나 파력 등을 이용한 발전이 널리 확산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인간이 폐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예전부터 인간은 휴양의 공간으로 바다를 즐겨 찾았다. 이는 유명 휴양지가 대부분 해변에 위치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수영, 보트, 수상 스キー, 스쿠버ダイ빙 등 바다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인간은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육지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과 동경을 키워 왔다.

지금까지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바다는 지구 전체의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바다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러한 바다 생물을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물 자원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는 석유, 천연 가스 등의 광물 자원과 에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인간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포근한 휴식처가 된다.

자료B 역시 전형적인 3단 구성의 수사적 방식 하에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설명글이다. 앞선 자료A에 비해 3단 구성 방식이 더 뚜렷하며, 아울러 본론 단락들의 첫머리에 비교적 분명한 담화표지들이 사용되어 각 단락들이 구분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료A에 비해 요약 과정이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대상 자료에 대해 요약 과정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를 요약할 시에는 순차적으로 원본 텍스트, 그리고 1, 2차 요약본을 참고하여 요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본고의 조사가 기억과 관련한 회상(recall)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요약하기 과정 시에 적용되는 거시규칙의 적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거시규칙은 이와 같은 요약의 반복성 혹은 회귀성에 토대를 둔다. 즉 요약이 거듭될수록 적용되는 거시규칙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주제 혹은 단일 명제가 독자의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남게 되는지는 요약하기의 반복 과정에 투영되는 거시규칙 적용의 본질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3회에 걸쳐 있는 반복되는 요약하기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거시규칙의 정형성은 발생 빈도와 조사 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적용과 관련될 수 있다. 이를 조사 대상자들은 언어 자각(language awareness)의 관점

에서 자신의 요약 과정을 검토하면서 적용된 거시 규칙의 발생 빈도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sup>11</sup>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대구에 위치한 특목고와 일반 인문계고 2학년 학습자들이다. 대다수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언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요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전략 등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sup>12</sup> 즉 대다수 학습자들은 요약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방법론이나 전략의 구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었다.

조사 과정은 크게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이루어진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공히 설명 혹은 주장 갈래 중에서 한 편만을 요약하고, 이에 적용된 거시규칙을 도출한다. 왜냐하면 동일 학습자가 두 편 모두에 참여할 경우, 요약 횟수에 따른 요약 분량 등에 의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거시규칙의 적용 양상에 대해서는 필자와 국어교육학 박사 2인의 선생님이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sup>13</sup> 전체적인 연구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한 것은 조사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1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대략 수능 언어 영역 관련 모의고사 성적 분포대가 50%~90%대이며, 특목고 학습자들의 경우는 80%대 이상에

11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 요약하기 횟수에 따른 결과를 두고 과제(수행 평가) 형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즉 차수별 요약 과정에서 거시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거시규칙의 적용빈도에 따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즉 각 횟수별 요약하기 과정에서 어떤 거시규칙이 적용되었는지는 학습자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언어 자각(language awareness)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2 학습자들의 수준은 수능 언어 영역 관련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일반 인문계 학습자들은 경우는 대략 50~90% 대에서 정균 분포를 이루며, 특목고 학습자들은 경우는 80% 이상에 위치한다.

13 조사 대상자들은 대구에 다니는 특목고 및 인문고 학습자들에 국한되었다. 조사 전반에 대한 과정은 대구 시지고의 홍성만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표 1. 연구개관**

조사 자료	1차 조사		2차 조사	
	설명	주장	설명	주장
조사 과정	1차~3차 요약 및 규칙 적용	1차~3차 요약 및 규칙 적용	1차~3차 요약 및 규칙 적용	1차~3차 요약 및 규칙 적용
조사 대상	인문고 2학년 30여명	인문고 2학년 30여명	특목고 2학년 30여명	특목고 2학년 30여명
조사 기간	2013.9~ 2013.10	2014.3~ 2014.4	2013.11~ 2013.12	2014.5~ 2014.6

위치하고 있다. 이런 수치상의 차이가 언어수행 수준 상의 차이로 그대로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언어 수행 수준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조사 과정의 경우는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요약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조사 자료가 지니는 내용의 평이성 때문에 실질적인 읽기 시간은 15분이 넘지 않았으며, 1차 요약의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 2차와 3차의 경우는 10분 이내로 단축되어 전체적으로 50분 이내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요약하기 과정이 3회로 반복된다 는 점을 사전에 주지하지 못했다. 다만 3차 요약 과정에 가서야 대상자들은 요약 과정이 반복된다는 점을 대다수 인지하였다. 다만 요약의 분량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요약이 끝나고 나서 학습자들은 네 가지 거시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요약한 결과를 토대로 이 거시규칙이 각 요약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의 결과를 수행평가 과제물로 제출하였다. 제출된 수행평가 과제는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교육 전공자 3인에 의해 상세하게 검토되었다.

## 2. 연구가설

본 절에서는 요약하기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수반될 수 있음과 관

련하여 두 가지 연구가설을 상정하였다. 요약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시 규칙 발생 빈도와 조사 대상자들의 언어 수행 수준에 따른 정형성의 문제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요약하기 과정에 드러나는 인지적 획일성이 아닌 거시 규칙 사용의 보편성 관점에서 논의된다.

#### 연구가설1: 거시규칙의 적용 빈도에는 정형성이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요약하기에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시규칙과 그렇지 못한 거시규칙이 있음을 상정한 것이다. 거시규칙은 조사 대상 글의 갈래나 요약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특정한 갈래에 선호되는 거시규칙이 있으며, 아울러 요약이 반복적으로 수행될수록 선호되거나 혹은 적용되는 거시규칙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고의 조사 대상 갈래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설명과 주장 글인데, 두 편 모두 각 갈래에 적합한 내용 전개 방식 및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단락의 조직 방식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이는 특정한 거시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약은 일정한 문장들의 결합체인 단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규칙 발생 빈도에 일정한 정형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요약하기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약한 삭제가 가장 보편으로 일어나며, 다음으로 요약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약한 삭제는 줄어들고 강한 삭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두 삭제 규칙은 전체적으로 일반화나 구성 규칙에 비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았다. 일반화의 경우는 전체 글의 관점에서 단락 내 소주제문을 중심으로 전체글에서는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적용될 것으로, 구성의 경우는 각본 혹은 틀 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일부만 적용될 것이다.

일반화의 경우는 일정한 하위 의미들이 재구성되어 상위 의미로 수렴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한 단락 내에서는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뒷받침문장들이 수렴되어 가는 양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성의 경우는 일

정한 각본이나 틀에 근거하여 각 행위들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총체적 행위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sup>14</sup>

또한 요약하기 차수가 거듭될수록 거시규칙의 양상이 차별화되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요약하기 활동의 본질과 관련된다. 요약하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인지 활동이 아니라, 독자가 단일한 하나의 주제 명제로 재구성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거시규칙의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약한 삭제나 일반화, 구성 등은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줄어드는 양상으로, 강한 삭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약한 삭제의 경우는 주제와 관련 없는 요소들의 삭제로, 그리고 일반화나 구성의 경우는 단락 간 재구성 및 통합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으로, 주로 1차나 2차 요약과정에서 많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강한 삭제의 경우는 주제와 지엽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들을 삭제하기 때문에 최종 요약 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설2: 조사대상자 간 거시규칙 적용 빈도 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고의 조사 대상자는 두 부류이다. 1차 조사의 경우는 일반 인문고 2학년 학습자로, 2차 조사의 경우는 특목고 2학년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언어 수능 모의시험에서 대략 20%~30% 정도의 분포 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이런 점수 상의 차이는 요약 시에 선호하는 거시규칙의 적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요약 차수에 따른 거시규칙의 적용 양상 또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14 이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사회적 행위 연속체와도 관련된다. 즉 이와 같은 전형적인 일화와 관련된 특정한 지식 구조가 틀 혹은 각본이다.

몇 가지 양상을 상정해 보자면, 우선 1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삭제에서 강한 삭제보다 약한 삭제를 더 많이 적용할 것으로, 반면에 2차 조사 대상자들은 비슷하거나 혹은 강한 삭제의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두 삭제 규칙 중에서 약한 삭제에 비해 강한 삭제가 적용상의 난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상에도 실질적인 인지적 어려움이 더 따를 것이다.

아울러 일반화나 구성의 경우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 대상 글이 비문학글이기 때문에 주로 일반화가 구성보다 많이 적용될 것인데, 1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반면에 2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일반화의 적용 빈도가 구성보다 높을 것으로 상정된다. 이 양상 역시 거시규칙 적용상의 인지적 난이도와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요약하기의 차수 간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읽기 수행 수준이 낮은 1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요약의 차수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거시규칙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표면적 정보 줄이기와 관련된 약한 삭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즉 정보를 독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텍스트의 표면적 독해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2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거시규칙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차 요약부터는 약한 삭제보다는 일반화나 강한 삭제의 규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는 2차 요약부터는 1차 때와는 다르게 보다 심층적이고 미세한 요약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차 요약 시에 기본적으로 줄여야 할 정보를 거의 다 줄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되는 없는 내용의 삭제와 관련된 규칙은 급격하게 그 빈도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IV. 연구결과 및 교육적 의의

### 1. 연구결과 및 논의

요약하기 과정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각 차수별 거시규칙의 발생 빈도의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이 차수별로 적용한 거시규칙을 모두 합산하는 형식으로 도출된다. 편의상 학습자들의 이름은 생략하고 번호만으로 순서를 매겼다. 거시규칙의 발생 빈도는 조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자신의 요약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아울러 그 결과를 3인의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각 조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요약하기 결과물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sup>15</sup> <표 2>는 1차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득글인 자료A와 관련된 거시규칙 적용 빈도 결과이다.

표 2. 자료A의 1차 조사 발생 빈도 결과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6	2	0	2	0	1	2	1	0	2	1	2
2	5	1	0	3	1	1	0	0	0	4	1	1
3	7	0	0	2	0	0	0	3	2	2	8	3

15 조사 대상자들이 요약하기 과정에서 적용한 거시규칙의 적용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요약하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본고에서 제시된 네 가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아울러 이런 네 가지 규칙도 학습자들이 실제로 아무런 조건 없는 요약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거시규칙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네 가지 거시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적절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대략적으로 대상자들이 적용한 거시규칙 중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받은 비율은 20~30% 정도였다. 따라서 이하 <표 2, 4, 6, 7>에서 제시되는 거시규칙 적용 빈도는 이를 수치가 감소된 상태로 반영된 것이다.

4	7	5	2	1	1	1	1	1	1	3	3	1
5	3	0	0	1	1	1	0	0	0	2	1	3
6	5	3	0	0	1	2	3	2	1	3	0	2
7	9	2	3	1	2	1	1	1	0	3	3	3
8	4	1	1	0	2	2	0	0	0	3	2	1
9	6	4	4	1	2	3	2	2	2	5	1	1
10	3	0	0	3	3	1	0	0	1	3	3	2
11	2	0	1	2	2	0	0	0	0	3	2	1
12	3	1	0	0	1	0	1	0	1	5	1	3
13	6	4	0	2	2	2	0	0	0	3	1	0
14	6	2	0	0	0	0	0	0	0	3	2	2
15	7	2	1	3	1	1	0	0	1	4	3	1
16	6	5	5	2	1	0	0	0	0	0	2	3
17	7	6	0	2	2	2	1	0	0	1	0	1
18	6	5	4	2	1	1	0	0	0	6	3	2
19	6	2	0	0	0	1	2	0	1	5	2	0
20	7	6	5	0	0	0	1	0	0	0	2	1
21	5	3	1	2	1	1	0	0	0	1	3	2
22	5	1	0	0	0	2	1	1	1	1	1	2
23	4	0	0	1	1	1	2	1	0	3	3	1
24	7	1	1	2	2	1	0	1	0	1	0	1
25	5	1	0	1	0	2	0	0	0	1	2	1
26	6	5	2	1	1	0	0	0	0	0	1	2
27	11	3	0	0	0	1	0	0	0	3	1	0
28	10	6	0	3	1	1	1	0	0	1	2	0
29	11	2	1	1	0	0	1	0	0	3	1	1
30	7	3	1	1	0	1	0	0	2	0	3	1
합계	#182	76	32	39	29	30	19	13	13	74	58	44
평균	6.1	2.5	1.1	1.3	1.0	1.0	0.6	0.4	0.4	2.5	1.9	1.5#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득글 대상의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약한 삭

제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강한 삭제, 일반화, 구성 순으로 발생 빈도가 드러났다. 약한 삭제나 강한 삭제의 빈도수에 비해 일반화나 구성의 빈도수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성의 경우는 그 빈도수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가설1에서 상정한 선호하는 거시규칙이 삭제 규칙이라는 점은 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선호되는 거시규칙의 경향이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한 삭제의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다른 거시규칙들을 줄어듦의 폭이 약한 삭제에 비해 작은 것은 드러나고 있다. 즉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대상 텍스트의 정보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텍스트 중심보다는 독자 중심에서 요약의 세부적인 측면들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설에서 제시한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강한 삭제의 빈도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더 미세하고 세밀한 요약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런 점들을 대상 학습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한 1차 요약에서 상당수의 삭제 규칙을 적용해서 더 이상 강한 삭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을 감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가 상당수 빈도로 적용되거나 혹은 발생되고 있지만, 구성의 경우는 적용되거나 혹은 선호되는 경향이 다른 거시규칙에 비해 매우 낮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해당 자료가 틀(frame) 혹은 각본(script)에 따른 일정한 의미 준거 및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조사 대상자들의 적용상의 애매성과 관련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들 스스로 텍스트와 독자의 양 측면에서 요약하기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상위 인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기술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2>에서 23번 대상자의 요약 결과 및 그에 대한 상위 인지적 측면에서의 서술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A와 관련하여 3차에 걸친 요

약하기 결과 및 요약 차수별 거시규칙 적용 양상에 대한 결과이다.<sup>16</sup>

### 〈1차 요약〉

최근 들어 우리 바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바다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에는 얹힘과 삼킴이 있는데, 사례로 바다표범의 몸이 바다에 버려진 뱃줄에 걸려 죽게 되는 것과 바다 새가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바다가 쓰레기로 오염되면 어업활동에 지장 받아 어선에 버려진 어망과 낚시 줄이 걸리거나 플라스틱 덮개 때문에 배의 엔진이 고장 나기도 한다. 또한 우리들이 바다는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바닷가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

우리가 훼손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해양 정화 사업과 캠페인 등의 정부 노력과 국민의 협력을 함께 이행해야 한다.

### 〈2차 요약〉

최근 들어 우리 바다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의 얹힘과 삼킴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바닷가를 이용하는 우리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는다.

정부의 사업과 국민의 협력을 통해 훼손된 바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6 실제 모든 요약하기 과정은 손쓰기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것은 내용이나 형식의 가감 없이 그대로 입력한 결과이다.

### 〈3차 요약〉

우리의 바다는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문제가 심각하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민의 어업활동에 지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쾌적한 바닷가를 이용할 수 없고, 바닷가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 받는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 대상자의 경우는 단락을 중심으로 요약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거시규칙의 적용을 통해 원본의 내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8개 단락으로 구성된 원본 텍스트가 1차 요약에서는 4개로, 그리고 2차와 3차에서는 단락 내의 문장 수의 변화만 있을 뿐 3개의 단락으로 요약되고 있다. 대상자가 실제로 거시규칙을 요약 차수별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23번' 대상자 거시규칙 적용과 그 빈도 양상

	1차 요약	2차 요약	3차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락 – 강한 삭제 (3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락 – 강한 삭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락 – 강한삭제 (2차 요약본 1단락 2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단락 – 약한 삭제 (2, 4, 7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단락 – 구성 (1차 요약본 2, 3단락)</li><li>• 2단락 – 강한 삭제 (1차 요약본 2단락 2번째 문장)</li><li>• 2단락 – 강한 삭제 (1차 요약본 3단락 1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단락 – 일반화 (2차 요약본 2단락 1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단락 – 구성 (원문의 3, 4단락)</li><li>• 3단락 – 약한 삭제 (원문 3단락의 3번째 문장)</li><li>• 3단락 – 강한 삭제 (원문 4단락의 2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단락 – 일반화 (1차 요약본 4문단 2번째 문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단락 – 적용 안됨</li></ul>

적용빈도 (횟수)	약한 삭제	4	약한 삭제	0	약한 삭제	0
	강한 삭제	3	강한 삭제	3	강한 삭제	1
	일반화	1	일반화	1	일반화	1
	구성	2	구성	1	구성	0

<표 3>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3번 대상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강한 삭제가 다수 사용되었다. 하지만 약한 삭제는 1차에만 적용되었고, 일반화와 구성은 비교적 적은 빈도수로 드러났다. 요약 대상 원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1차 요약에서는 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가 1차 요약본을 대상으로 한 2차 요약에서는 강한 삭제가, 2차 요약본을 대상으로 한 3차 요약에서는 강한 삭제와 일반화가 일부 적은 수로 적용되고 있다. 이어서 자료 A와 관련된 2차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료 A의 2차 조사 발생 빈도 결과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6	3	0	2	1	0	2	1	0	10	8	7
2	0	0	0	2	2	0	2	1	1	5	3	3
3	3	0	0	0	2	0	1	2	1	7	2	0
4	6	2	0	5	4	2	1	0	3	1	6	1
5	4	0	0	5	1	0	3	2	2	12	4	3
6	5	4	3	3	2	2	0	1	2	2	1	1
7	5	1	0	4	2	1	2	3	2	3	4	2
8	1	1	0	3	1	1	1	1	1	4	2	2
9	6	3	1	4	2	2	0	0	0	2	1	2
10	3	2	2	1	2	1	1	1	0	2	2	2
11	2	0	0	3	1	0	2	2	2	6	6	4
12	6	0	0	3	1	0	2	1	0	3	2	2
13	5	2	2	2	1	1	1	1	0	4	2	1
14	6	0	0	6	3	3	1	2	2	3	1	2

15	4	1	0	3	1	1	2	1	0	3	3	2
16	4	1	1	3	1	0	2	0	1	7	5	5
17	2	1	1	1	2	2	1	2	1	4	3	2
18	2	2	0	3	1	2	1	0	0	3	2	1
19	6	2	1	3	3	4	1	1	0	3	3	5
20	3	1	1	2	2	1	1	2	0	7	5	3
21	4	3	2	1	1	2	0	1	2	4	1	3
22	4	1	1	4	3	2	1	0	0	3	4	5
23	3	0	1	3	2	1	2	1	1	2	3	4
24	5	3	2	3	3	4	0	0	0	2	2	4
25	3	1	2	1	3	2	1	0	0	2	1	2
26	1	1	1	2	1	2	1	0	0	4	3	4
27	5	3	2	2	1	1	1	2	0	3	2	3
28	2	3	2	2	2	1	1	1	1	4	2	2
29	3	2	1	4	2	4	0	0	0	3	5	2
30	4	2	1	3	3	1	1	1	0	2	3	3
합계	#113	45	27	83	56	43	35	30	22	120	91	82
평균	3.8	1.5	0.9	2.8	1.9	1.4	1.2	1.0	0.7	4.0	3.0	2.7#

<표 4>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설득글 대상의 2차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거시규칙 적용 빈도가 ‘구성 < 일반화 < 약한 삭제 < 강한 삭제’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제시한 두 삭제 규칙의 적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은 수용되지만, 강한 삭제의 경우는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 가설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다르게 드러났다.

앞선 1차 조사의 경우와 그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우선 1차 조사의 경우는 적용 상의 빈도가 ‘구성 < 일반화 < 강한 삭제 < 약한 삭제’의 순이었는데, 확인 조사의 경우는 강한 삭제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강한 삭제의 요약 차수별 빈도수도 상당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강한 삭제의 적용 빈도 측면에서 1차 조사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차 조사의 몇 가지 결과 양상을 살펴보자면, 약한 삭제의 경우는 요약 차수에 따라 1차 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다만 2차와 3차 요약 시에 그 횟수가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의 경우는 1차 조사의 빈도수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구성의 경우도 미미하지만 1차 조사의 빈도수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간략하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드러난 거시규칙의 평균 빈도수는 <표 5>와 같이 비교될 수 있다.

**표 5.** 자료 A의 집단 간 거시규칙 평균 빈도수

	1차 조사 학습자			2차 조사 학습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약한 삭제	6.1	2.5	1.1	3.8	1.5	0.9
일반화	1.3	1.0	1.0	2.8	1.9	1.4
구성	0.6	0.4	0.4	1.2	1.0	0.7
강한 삭제	2.5	1.9	1.5	4.0	3.0	2.7

즉 <표 5>에서와 같이 평균 수치상으로 드러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결과상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2차 조사 대상자의 경우는 약한 삭제의 빈도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반면에 강한 삭제와 일반화의 빈도수가 높다. 이는 조사 대상 학습자들 간의 거시규칙의 적용상에 있어서 인식 상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2차 조사 대상자들이 1차 조사의 대상자들에 비해서 보다 인식상으로 어려운 거시규칙을 적용했음과도 관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강한 삭제의 경우는 전체 주제와 지엽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약한 삭제보다 보다 미세하고 세밀한 독해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위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의미에 비해 더 추상적인 인식 과정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런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 텍스트와의 상호교섭 과정을 통해 의미의 범주화가 일어나야 한다.

구성 규칙의 경우도 일반화 규칙에 비해서는 그 빈도수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빈도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구성 규칙의 경우는 행위의 전형화 된 틀(frame) 혹은 각본(script) 지식과 관련되는데, 이들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 과정 혹은 그런 행위들이 일정한 순서 및 규칙에 따라 구성된 사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의미의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층위 혹은 더 구체적인 지식의 사용 여부가 요약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차 조사의 대상자들에 비해 2차 조사 대상자들의 요약 상의 거시규칙 적용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요약의 품질에도 더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B인 설명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이다. 앞선 주장글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총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 방식으로, 비교적 단락 위주로 그 내용들이 재구성될 수 있는 전개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1단락과 8단락이 서론과 결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본론 단락으로 요약되어 재구성될 수 있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료B의 1차 조사 발생 빈도 결과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5	0	0	1	0	0	0	0	0	5	2	1
2	4	0	0	2	1	1	1	0	0	5	3	0
3	6	3	0	1	0	0	1	0	0	2	2	2
4	3	1	0	2	1	0	0	1	0	1	2	0
5	4	1	0	4	2	0	1	1	1	2	2	0
6	4	3	1	3	1	0	1	1	2	4	3	2

7	5	3	0	1	0	1	1	0	0	5	4	4
8	5	2	1	1	1	1	0	0	0	1	2	1
9	5	4	1	1	2	0	1	1	0	6	3	2
10	6	1	1	3	1	0	1	2	3	2	4	0
11	7	3	0	1	1	1	1	0	1	4	1	0
12	4	0	0	2	0	0	0	1	1	2	1	0
13	7	0	0	2	1	0	1	1	0	3	2	3
14	4	3	0	1	2	0	2	2	0	3	1	1
15	7	3	1	2	3	2	1	0	0	5	3	2
16	7	4	3	4	2	1	1	1	0	2	1	2
17	6	1	0	2	3	1	1	1	0	3	2	1
18	5	0	0	2	1	1	2	2	3	5	3	1
19	6	3	0	2	4	3	1	1	0	2	2	1
20	4	1	0	3	1	2	0	0	0	3	1	1
21	3	0	0	4	2	1	1	0	1	2	1	2
22	6	0	0	3	2	3	1	2	1	3	2	1
23	9	1	0	3	1	2	1	1	0	1	2	3
24	13	7	4	3	2	1	2	0	1	5	3	1
25	4	1	1	3	2	1	1	0	0	3	3	2
26	6	2	1	2	1	3	2	1	1	1	1	1
27	5	3	4	3	3	2	1	0	0	3	2	3
28	2	1	1	2	3	2	2	1	1	3	2	1
29	3	2	1	5	4	3	0	1	0	1	1	0
30	5	2	1	2	2	1	0	0	0	2	0	0
합계	#160	55	21	70	49	33	28	21	16	89	61	38
평균	5.3	1.8	0.7	2.3	1.6	1.1	0.9	0.7	0.5	3.0	2.0	1.3#

〈표 6〉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설명글인 자료B에 대한 1차 조사 대상 학습자들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구성 < 일반화 < 강한 삭제 < 약한 삭제’로 발생 빈도의 순서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설득글 대상인 자료A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화와 강한 삭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양상이

다. 물론 구성 규칙의 빈도도 약간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반화의 경우에 1차 요약 시에 그 적용 빈도가 상당 부분 증가하였다. 자료A 1차 조사의 경우는 1차 요약 시에 일반화의 평균 빈도 수치가 ‘1.3’회였지만, 자료B의 경우는 평균 빈도 수치가 ‘2.3’회에 이르고 있다. 물론 2차 요약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자료A와 달리 자료B에서 일반화 규칙이 증가한 것은, 자료B의 경우에 비교적 각 단락이 지니는 의미적 독립성과 각 단락의 핵심이나 핵심문장이 상위 의미로 비교적 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요약 시에 작용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

가설1에서 제기한 거시규칙 발생 빈도의 정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A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두 삭제 규칙의 적용 선호가 높으며, 일반화와 구성, 특히 구성 규칙의 적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강한 삭제의 경우는 요약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 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자료A와 같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어서 자료B의 2차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인 빈도수는 ‘구성 < 약한 삭제 < 일반화 < 강한 삭제’의 순이다. 전체적으로는 두 삭제 규칙의 빈도수가 높기는 하지만, 일반화 규칙이 약한 삭제보다 많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강한 삭제의 경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요약 차수에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화 규칙이 약한 삭제보다 두드러지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7. 자료B의 2차 조사 발생 빈도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6	1	0	4	3	2	1	0	0	5	2	1
2	3	3	1	3	1	0	1	1	1	3	5	4

3	4	0	0	1	0	0	2	1	1	4	4	4
4	5	4	0	3	2	0	0	0	0	2	1	2
5	5	2	2	8	5	2	2	0	0	3	2	1
6	1	1	0	2	1	0	0	2	1	4	3	4
7	4	1	1	4	3	2	1	0	1	3	2	1
8	6	2	0	1	2	0	2	0	1	5	2	4
9	2	0	0	5	4	1	0	1	2	8	5	1
10	6	1	0	1	2	1	1	0	0	5	3	4
11	2	7	3	1	1	1	1	1	0	3	4	6
12	6	3	2	5	3	1	0	3	0	6	3	5
13	1	0	1	3	2	0	1	1	0	5	2	2
14	5	5	1	1	1	0	2	1	2	3	2	1
15	0	2	1	4	1	1	1	0	2	3	5	1
16	3	1	3	5	2	1	0	0	0	5	3	4
17	4	1	0	4	1	1	2	1	1	7	4	2
18	2	1	3	2	2	0	2	0	0	3	3	6
19	0	0	0	6	2	1	1	0	0	6	1	2
20	5	1	0	0	2	2	1	1	1	5	3	2
21	1	0	0	5	6	0	2	3	1	2	1	3
22	6	0	0	4	2	1	3	0	2	3	6	5
23	4	1	0	2	1	1	2	1	1	2	2	1
24	3	0	0	6	6	5	2	1	1	3	3	5
25	4	0	0	4	2	1	0	0	0	3	4	7
26	3	1	1	4	4	1	2	1	1	1	4	2
27	2	4	4	5	3	0	1	0	0	2	4	7
28	4	1	0	3	2	2	1	1	0	2	3	2
29	3	1	0	3	2	1	0	0	0	5	3	3
30	2	1	0	1	2	0	1	0	0	3	3	5
합계	#102	45	23	100	70	28	35	20	19	114	92	97
평균	3.4	1.5	0.8	3.3	2.3	0.9	1.2	0.7	0.6	3.8	3.1	3.2#

자료B의 1차 조사와 비교해 본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우선 1차 요약에서 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의 빈도수의 차이다. 1차 조사에서는 약한 삭제가 1차 요약에서 두드러짐을 보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강한 삭제의 빈도수 증가 현상이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일반화 규칙의 적용 빈도수가 1차 조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두 현상은 앞선 자료A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1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약한 삭제를 많이 적용하는 반면에, 2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약한 삭제뿐만 아니라, 강한 삭제와 일반화 규칙도 상당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 간에 거시규칙 적용에 있어서는 인식 상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료B의 요약 차수별 결과 및 그에 관련한 거시규칙 적용 양상에 대한 상위 인지적 측면의 기술을 일부 학습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자 한다. 앞선 자료A의 경우는 1차 조사 대상자로, 자료B는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하는 <표 7>에서 3번 대상자가 제시한 차수별 요약 결과와 그에 부합하는 거시규칙 적용에 대한 서술 양상이다.

### 〈1차 요약〉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바다는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퍼센트를 차지하고, 바닷물의 양은 지구상의 물의 98퍼센트에 이른다. 다음 문단에서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다섯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바다는 지구 전체의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 둘째, 플랑크톤에서 고래까지 이르는 다양한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해 준다. 셋째, 인류에게 중요한 생물자원이 되어 준다. 동물성 단백질의 6분1을 공급해 주고, 항바이러스, 항암물질 등 보건 문제 해결에 유용한 물질을 제공해 준다. 그 예로, 크릴새우는 인류 미래 식량 자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넷째, 다양한 광물자원을 얻고 에너지원이 되

어 준다. 모래, 자갈 등은 건축 재료로 망간, 코발트, 니켈은 광물자원으로 이용된다. 조력, 파력 발전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대체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휴식처가 되어 준다. 휴양지, 여가 활동, 마음의 안식처로 인간에게 휴식처가 되어 준다.

### 〈2차 요약〉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바다의 가치를 무한하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바닷물은 지구상 물의 98%에 이른다. 다음 문단에서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 5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기와 상호작용하며 지구 전체의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둘째,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셋째, 동물성 단백질의 6분의 1을 제공하고, 보건문제 해결에 유용한 물질 등 중요 생물자원이 된다. 넷째, 다양한 광물자원과 조력, 파력 발전 등의 에너지원이 되어 준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휴식처가 되어 준다.

### 〈3차 요약〉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바닷물은 지구상 물의 98%에 이른다.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바다의 가치는 무한하다. 바다는 크게 다섯 가지의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바다는 지구 전체의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 바다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어 주며, 중요 생물자원이 되어 주기도 한다. 바다는 다양한 광물자원과 에너지원이 되어 주며, 인간의 휴식처가 되어 주기도 한다.

위의 조사 대상자는 요약본 1에서는 2단락에서 마지막 단락까지를 구성을 통해 재구성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본론의 각 단락에서 제시한 바다의 혜택을 하나의 단락으로 통합한 것이다. 요약본 2에서는 단락의 개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두 번째 단락을 내용을 주로 강한 삭제를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요약본 3차에서는 두 개의 단락을 구성 규칙을 통해 통합하고 있다.

**표 8.** '3번' 대상자 거시규칙 적용과 그 빈도 양상

	1차 요약		2차 요약		3차 요약	
	<b>한 단락 내</b> 1단락: 약한 삭제 2단락: 강한 삭제, 약한 삭제, 강한 삭제, 약한 삭제, 강한 삭제,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b>전체글</b> 2단락: 구성		<b>한 단락 내</b> 2단락: 강한 삭제, 강한 삭제, 강한 삭제, 구성, 강한 삭제		<b>한 단락 내</b> 1단락: 강한 삭제, 강한 삭제 및 구성 3회 적용  <b>전체글</b> 1단락: 구성	
적용빈도 (횟수)	약한 삭제	4	약한 삭제	0	약한 삭제	0
	강한 삭제	4	강한 삭제	4	강한 삭제	4
	일반화	1	일반화	0	일반화	0
	구성	2	구성	1	구성	4

전체적으로 드러난 조사 결과를 거시규칙 적용의 빈도 및 비율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표 9>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요약 차수별 빈도수는 무시하고, 전체 요약 빈도수로 통합하였다. 왜냐하면 가설에서 강한 삭제의 경우는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그 빈도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상정하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9.** 거시규칙 적용 빈도수에 따른 전체 결과

		1차 조사				2차 조사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약한 삭제	일반화	구성	강한 삭제
자료A	빈도	290	98	45	176	185	182	87	293
	비율	#47.6	16.1	7.4	28.9	24.8	24.4	11.6	39.2#
자료B	빈도	236	152	65	188	170	198	74	303
	비율	#36.8	23.7	10.1	29.3	22.8	26.6	9.9	40.7#

우선 가설1의 경우는 거시규칙 적용에 정형성, 즉 특정한 거시규칙의 적용이 많거나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 검정은 네 가지 거시규칙이 동일

할 것이라는 점을 영가설로 두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기각치 7.815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가 나와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sup>17</sup> 즉 네 가지 거시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 거시규칙 적용의(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요약 차수에 따른 정형성의 문제, 즉 강한 삭제의 경우는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증가 혹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상정하였는데, 일부 요약 차수 간에 증가 현상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다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 대상자들 간 그 줄어듦의 폭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1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그 줄어듦의 폭이 다소 큰 편이었으나 2차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작은 편으로 드러났다.

가설2의 경우는 거시규칙 적용에 있어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영가설을 ‘두 집단 간에는 거시규칙 적용 상에 차이가 없다’라고 두고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료A의 경우는 유의수준 5%에서 기각치 7.815를 넘어서는 77.72로, 자료B의 경우는 2.52로 그 결과 값이 나왔다. 따라서 자료A의 경우는 기각으로, 자료B의 경우는 수용되었다.

즉 자료A의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료B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언어 수행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시규칙의 적용에 일정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텍스트의 갈래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다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요약 및 거시규칙의 적용 빈도를 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17 자료A 1차 조사는 ‘223.22’, 2차 조사는 ‘168.44’, 자료B의 1차 조사는 ‘153.04’, 2차 조사는 ‘217.51’로 결과값이 나왔다.

## 2. 교육상 의의

본고는 설득과 설명의 두 텍스트를 언어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요약하도록 하고, 이에 적용된 거시규칙의 적용 빈도 양상을 거시규칙의 정형성 및 대상자 간 차이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았다.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 요약하기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요약하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인지적으로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독자와 텍스트 간, 그리고 요약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복합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약의 정형화된 방법이나 전략 등이 부재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나치게 규범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점에서 요약하기의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거시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그 단면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요약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약 규칙 혹은 거시 규칙을 일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적용의 정형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요약의 방법론에 대한 부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시 규칙 적용의 정형성 문제에 있어서는 삭제 규칙의(약한 삭제 및 강한 삭제) 선호가 두드러지고, 일반화 규칙의 경우는 일부 학습자들에게서 선호도가 높았고, 구성 규칙의 경우는 글의 갈래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강한 삭제의 빈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상정하였지만, 일부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못하였다.

둘째, 학교 현장의 학습자 중심 교육은 이른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한다. 특히 나이도가 높은 교육 전략이나 방법 등을 철저하게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요약하기는 그 수행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전략에 속한다. 아울러 독자 중심의 요약으로 갈수록 그 수준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요약하기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요약하기를 어려워하고 실제로 요약하기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그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본고의 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일부 거시 규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언어 수행 수준이 높다고 상정된 학습자들의 경우는 약한 삭제와 더불어 강한 삭제, 그리고 일반화 규칙까지 적절하게 적용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언어 수행 수준이 낮다고 상정된 학습자들의 경우는 약한 삭제만이 두드러지고 강한 삭제나 일반화 규칙의 적용 빈도는 낮게 드러났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언어 수행 수준이 더 낮은 초·중학교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요약 시에 이런 거시 규칙의 선별적 적용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V. 마무리

본고는 요약하기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거시규칙의 정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요약하기 과정의 기준의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요약 과정의 인지적 접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과 관련된다. 거시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일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기의 교육적 의의를 이끌어 내었다.

첫째, 거시규칙 적용의 정형성과 관련된 가설에서는 삭제 규칙, 이른바 약한 삭제와 강한 삭제의 적용이 다수 적용되었고, 일부 집단의 학습자들에 게서 일반화 규칙이 약한 삭제의 수치를 넘어서 적용된 결과가 나왔다. 즉

삭제 규칙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일부 우수 집단 학습자들의 경우는 일반화 규칙도 상당수 적용하고 있었으며, 요약 차수가 진행될수록 강한 삭제를 증가시켜 가기도 하였다.

둘째, 거시규칙의 적용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대상 글의 갈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설득글의 경우는 언어 수행 수준에 따른 거시규칙의 적용에 있어 차별성이 드러났지만, 설명 글의 경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상 글이 지니는 조직이나 내용상의 난이도 등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고려된다.

본고는 요약하기에 드러난 거시규칙의 정형성은 문제를 일부 대상자들의 요약하기 과정을 통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학교 현장에서 요약하기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글 등이 일부 집단과 자료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집단과 대상글을 바탕으로 요약 과정에서의 거시규칙의 정형성을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하는 한계를 남긴다.

\* 본 논문은 2015. 1. 25. 투고되었으며, 2015. 2.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3. 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윤미(2006), 「거시규칙을 적용한 중학생들의 텍스트 요약 실태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9, pp. 137-158.
- 김재봉(1995), 「문 주제 중심의 텍스트 요약과 거시규칙」, 『텍스트언어학』 3, pp. 31-82.
- \_\_\_\_\_ (1997), 「텍스트 요약 전략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 김정훈(1997), 「요약하기 책략 지도 방안 연구」, 교원대 석사논문.
- 김태구(2014), 「요약규칙에 관한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서종훈(2008), 「요약자료를 통해 드러난 고1 학습자들의 의미문단 파악 양상」, 『우리말연구』 21, pp. 211-238.
- 서혁(1994), 「요약능력과 요약 규칙」, 『국어교육연구』 4, pp. 113-143.
- 심선희(2009), 「요약 규칙을 적용한 요약하기 지도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 석사논문.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이성만(1994), 「텍스트의 의미 구조」, 『인문논총』 8, pp. 129-198.
- 임두순(1989), 「독해전략 훈련의 학습효과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전원대(2010), 「텍스트 의미 구조 유형에 따른 요약하기 지도 방안」, 부산대 석사논문.
- 정시호 융김(2000), 『텍스트학』, 아르케.
- 천경록(1992), 「덩이글의 주제구성 방법연구」, 교원대 석사논문.
- 허선익(2010), 「논설문의 요약글 산출 과정에 관련된 변인 분석」, 경상대 박사논문.
- Brown, A. L. and Day, J. D. (1983). Macrorules for Summarizing Texts: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Behavior*, 22.
- Kintsch, W. (1993). Information Accretion and Reduction in Text Processing: Inference, *Discourse Processes*, 193-202.
- \_\_\_\_\_ (1998). *Comprehension*. Cambridge.
- Kintsch, W. & van Dijk, T. A. (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 no.5, pp. 363-394.
- \_\_\_\_\_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 van Dijk, T. A. (1977). Semantic Macro-Structures and Knowledge Frames in Discourse Comprehension. In Marcel Adam Just & Patricia A. Carpenter (eds.), *Cognitive Processes in Comprehens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3-32.
- \_\_\_\_\_ (1979). Recalling and summarizing complex discourse. In Burghardt, W. & Holker, K. (eds.), *Text processing*. Berlin: de Gruyter, S. 49-118.
- \_\_\_\_\_ (1980). *Macrostructures*. Hillsdale, N.J.: Erlbaum.

## 요약하기에 드러난 거시규칙 적용 양상 고찰

서종훈

본고는 요약하기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거시규칙의 정형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거시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일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기의 교육적 의의를 이끌어 내었다.

첫째, 거시규칙 적용의 정형성과 관련된 가설에서는 삭제 규칙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일부 우수 집단 학습자들의 경우는 일반화 규칙도 상당수 적용하고 있었으며, 요약 차수가 진행될 수록 강한 삭제를 증가시켜 가기도 하였다. 둘째, 거시규칙의 적용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대상 글의 갈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고는 요약하기에 드러난 거시규칙 정형성의 문제를 일부 대상자들의 요약하기 과정을 통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학교 현장에서 요약하기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글 등이 일부 집단과 자료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남긴다.

핵심어 요약하기, 거시규칙, 약한 삭제, 강한 삭제, 일반화, 구성

##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 of Macrorules in Summarizing

Seo Jonghun

This paper treated macrorules that might be adopted in summarizing.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pplied in subjects, and education meaning deducted.

First, universal utilization of deletion rule in macrorules application was proved characteristically. Some excellent subjects applied generalization rule with considerable frequency. And they increased strong deletion as the number of summarizing. Second, Macrorules would be applied to the difference of between groups but turned out to b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genres of text.

This paper highlighted typicality of macrorules through the summarizing of some subjects. And it provided a clue of how to summarize in korean education. However it was left limits in the choice of subject and text during the course of investigation.

**KEYWORDS** summarizing, macrorules, weak deletion, strong deletion, generalization, construction